

# ‘모든 것은 변한다’... 자각·정진해야 역사 전환

김상현 동국대 사학과 교수 고별강연

11월 30일, 주제 ‘불교의 역사관’

김상현 교수(동국대 사학과)의 퇴임 기념 강연회가 11월 30일 동국대 초하당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불교의 역사관’을 주제로 강연한 김 교수는 “과거의 역사적 행위는 버릇으로 오늘에 이른다. 역사는 물의 흐름을 정당한 방향으로 바꾸려면 진실로 자각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연의 요지다.

정리=이아나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수없는 세계와 중생 기초로 한 불교 역사관  
불교의 역사관은 신을 중심으로 혹은 인간만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수많은 다양한 세계와 중생들을 기초로 하고 있다. 현상계에서 사건의 연속적인 고리들은 계속적으로 서로 뒤섞이고 쉬지 않고 앞으로 회전하며 거대한 거물을 만들고 있다.

인간이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집단적이듯이, 우리의 행위도 별업(別業)과 공업(共業)을 동시에 이루어가고 있다. 개인의 업은 집단의 업에 영향 받고 공업 또한 별업의 영향을 받는다. 하나와 전체는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란 중생들의 행위에 의해서 생겨난 것을 말한다. 개인의 행위는 그 사람 개인의 인격을 형성시키고, 개인의 일생 역사를 만들어 간다. 그러기에 불교에서는 사람은 선업에 의해 선인이 되며, 악업에 의해 악인이 된다고 했던 것이다. 이 가르침에 의하면, 집단의 역사도 그 집단의 공동적인 행위에 의해서만 향상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도 있고, 몰락의 역사가 존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역사란 사람들이 지어온 온갖 업들의 축적이다. 인간의 행위에는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기에 역사에도 자랑스러운 것과 부끄러운 것이 함께 한다. 인류가 경험했던 수많은 과거사는 개인이나 집단의 무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장식(藏識), 혹은 종자식(種子識)이라고 한다. 그 종자들은 적당한 인연을 만나면 싹을 트고 꽃을 피울 것이며, 때로는 가시가 되기도 하고 혹처럼 불거지기도 할 것이다.  
우리가 ‘역사 바로 세우기’ ‘과거청산’ 등의 용어

를 쓰지만, 이미 일어난 과거로서의 역사는 어느 누구도 깨끗이 씻어 내거나 청산 할 수 없다.  
과거사에 대한 오늘의 반성과 참회는 있을 수 있다. 바로 세우는 것은 과거의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가고 있는 역사적 발걸음을 반듯이 걸어가려는 노력이다. 이것도 또한 과거에 대한 참회와 반성이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과거를 없앴던 것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기 어렵고 그 짐을 벗어던지기가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우리들 행위를 의식적으로 행함으로써 새로운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

역사는 세척된 그물처럼 얽힌 연기(緣起)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어떤 조건으로 말미암아 발생한다. 이것이 인연소기(因緣所起)이고, 연기(緣起)이다. 그러기에 역사는 곧 연기이기도 하다. 연이란 세척된 그물처럼 수많은 인연들이 얽히고설기면서 전개되는 사건들이다. 따라서 그 어떤 역사 사건도 단순한 한두 원인으로 설명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역사란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기의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밝히고 있는 것으로 화엄교학 중의 중요 테마인 육상(六相)의 이론이 있다. 즉, 총상(總相), 별상(別相), 동상(同相), 이상(異相), 성상(成相), 괴상(壞相)이다. 만유의 모든 법에는 낱낱이 육상이 있다는 것이다. 총상은 전체적인 모습을, 별상은 개별적인 모습을, 동상은 동질적인 양상을, 이상은 서로 다른 양상을, 성상은 이루어진 상태를, 괴상은 각각의 위치를 잃지 않는 상태를



김상현 교수는... 1981년 단국대 조교수로 교직생활을 시작, 한국교원대를 거쳐 동국대 사학과 교수로 32년간 재직했다. 김 교수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장, 동국대 문과대학 학장을 역임했으며, 신라사상과 한국역사 및 불교사에 대해 120편의 학술논문을 저술했다. 또한 불이상, 명원사문화상, 뇌허불교학술상, 차문화학술상 등을 수상했으며 <역사로 읽는 원효> <신라화엄사상연구> <한국불교사 산책> 등이 있다.

역사는 곧 연기...통합적 이해 필요  
별업·공업 서로 영향주며 업 축적  
습기 때문에 방향 전환 어려워  
원효 ‘악업의 장애 참회로 제거’

말한다.  
전체와 부분은 즉(卽)과 중(中)의 관계로 설명된다. 하나가 곧 일체고, 일체가 곧 하나다. 즉 일과 다, 전체와 부분의 관계는 상즉상입(相即相入)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호 관계는 동질성과 이질성 사이에도 꼭 같이 적용되는 원리다.  
인간은 수많은 개별적인 기관이 모여서 이룩한 하나의 전체다. 그러나 인류라는 집합체인 또 하나의 전체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하나의 개별이고 부분이다.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질 뿐이다. 연기의 도리인 것이다. 신라의 원효와 의상, 그리고 고려 시대의 의천과 지눌 선사들은 인간과 사회, 그리고 세계를 이와 같은 6상의 이론에 입각해서 이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보편적 진리는 불교의 이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어느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한 보편적인 도리이기에 역사 이해에 적용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불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한 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하고 있다는 보편적 사실을 강조한

다. 역사 또한 끝없는 변화를 그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 변화를 어떤 이는 발전이나 진보로 설명하려 한다. 과학 문명 등을 단순히 생각하면 역사는 마치 진보하는 듯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역사를 단순히 진보하는 것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역사란 어떤 인연이 쌓이면 발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퇴보할 수도 있다. 인생이란 온갖 가능성에 접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따라서 어떤 집단의 역사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성수대교 무너진 이유 파악보다 관행 그쳐야

우리는 과거에 지은 업보, 역사라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쏟아져 내린 물이 다시 흘러 더 많은 피해를 일으키기 전에, 그것을 단순히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원효는 “악업의 장애는 참회로써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참회로 과거의 잘못된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날의 업력(業力)이 흘러 현재에까지 영향주지 못하도록 차단하려는 것이다. 그러기에 원효는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한다는 것은 종자의 왕성한 작용을 현재에까지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다.  
오늘 우리들 삶을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무방비 상태로 맡겨둘 수는 없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새로운 역사의 불모지를 트기 위해서는 과거 잘못에 대한 강한 비판과 참회가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발상의 전환이냐 의식의 전환을 강조한다. 그러나 역사의 전환은 결코 생각이나 다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수대교가 끊어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수많은 우리의 허술함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또 입방아를 찧었지만, 그것은 말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관행을 그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인내하고 실천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정진·인욕·지혜가 필요하다.

왜 이다지도 전환이 어려운 것일까. 오랜 습관과 습기(習氣)로 인해서 과거의 잘못을 단호하게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를 인생도 변하고, 우리의 업도 변한다. 사실 이것이 곧 역사다. 착한 이가 나쁘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쁜 자로 지탄받던 자가 새롭게 착한 사람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것이 역사의 전환이다.

자각으로 오늘 살면 새 역사 개혁하는 길

역사는 냉엄한 현실이다. 삶에서 부끄러운 온갖 아픔도 현실이다. 고통은 실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만 관념적으로 논할 것이 아니다.

유석에서는 인간의 업장이 두렵고 과거의 습기가 많아서 삼 이승지 겁을 뒤흔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화엄불교에서는 ‘초발심시변성정각(初發心時便成正覺)’이라고 했고, 선불교에서는 세수하다가 코를 만지듯 그렇게 불성을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했다. 어두운 밤에는 하나의 등불로 환해진다. 역사의 변화도 점진적이고 순차적인 변화도 있고, 혁명적인 급격한 변화도 있다. 둘 한 덩어리가 물길을 바꾼다.

우리는 과거에 매달리지도 않지만, 또한 미래에 끌려가지도 않는다.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일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결국은 오늘 우리들의 결단도 도움을 얻기 위해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좋고 해서는 안 되는지 등의 문제에 소홀하지 않기 위해 과거의 여러 경험을 통해 배운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자각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다. 불교의 업설(業說)은 운명론이 아니다. 우리는 역사라는 과거의 짐을 짊어지면서도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 가야만 한다.

역사의식이란 역사라는 물의 흐름을 살펴서 그 물의 흐름을 바꾸는 일이다. 어떻게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물결을 정당한 방향으로 돌릴 수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진실로 자각 안에서 사는 것이다. 현재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을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부처님은 <염저경>에서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결연하게 현재에 행하고 있는 한 생각 한 행동에 대해서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잘못된 역사 즉 속업(宿業)의 업장을 단호하게 끊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업을 이루어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세상을 역사 속에 이룩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이고 자각적이며 단호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개인의 역사에도 또는 집단의 역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집단의 역사를 새롭게 개척하기 위해서는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 모두가 함께 행하는 일, 즉 공업을 새롭게 일구어 나가야 하고, 개인은 개인대로 또한 부단히 정진해야 한다.

사학과 김상현 교수님 정년 기념 고별 강연회

## 한국불교사 연구의 길 30년

주최 : 동국대학교 사학과    일시 : 2012년 11월 30일 17시 30분    장소 : 동국대학교 문화관 초하당세미나실

동국대 사학과 김상현 교수가 11월 30일 동국대에서 ‘불교의 역사관’을 주제로 퇴임 기념 강연을 했다. 이날 300여 학생과 교수가 참석해 김 교수의 강연을 경청했다.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 82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학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관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정,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2년 12월 중

◆개강일시 : 2012년 12월 개강. 매주 (일, 목) 오후 5시~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합판 사진 3매

※ 원본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 2013

2013(불기 2557)학년도 서울 금강불교대학

### 신입생 모집안내

본 대학은 한국 불교종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 교과과정안내

과목	기간	교과목	요일	자격	시간	서류 및 전형방법	인원	수강료
불교학과	1학년 2학년	불교입문, 부처님상에대응불교, 불전개설 천태불교학 중국불교, 법화경 I·II	월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	· 1교시 : 18:30 ~ 19:50 · 2교시 : 20:10 ~ 21:30	· 입학원서 1부 (5,000원) · 반영합판사진 2매 · 1차 서류, 2차 면접	약 200명	20만원 (1년 10만원씩)
			화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법사과	1년	선사상, 유식사상천수경, 정토사상 화엄경, 포교방법론	수	본교 중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1교시 : 18:00 ~ 19:20 · 2교시 : 19:30 ~ 20:50 · 3교시 : 21:00 ~ 22:20	· 지원서 1부 · 반영합판사진 2매 · 서류전형	약 100명	50만원 (한 학기25만원)

#### 원서접수

원서교부	접수 및 면접 장소·일시	위치 및 교통
우면동 관문사 : 02.3460.5300 신촌 성명사 : 02.336.2052 봉천동 명림사 : 02.889.7272 구로 명화사 : 02.854.0196 망우동 심문사 : 02.496.3803 성남 화상사 : 031.745.1482 일산 화상사 : 031.905.2912	평택 법장사 : 031.655.9090 수원 용광사 : 031.255.4105 구리 금강사 : 031.563.9364 안양 대안사 : 031.459.3666 안산 월광사 : 031.419.5048 부천 천화사 : 032.671.5353 군포 성각사 : 031.392.0924	· 접수 : 2012년 11월 19일(월) ~ 2013년 2월 15일(금) 18시까지 · 면접 : 2013년 2월 16일(토) 오후 16시 · 장소 : 관문사 2층 금강불교대학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통보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2층 TEL 02)576-6401 / FAX 02)574-1541